

# P-11 하악 부분 무치악 환자의 골유착성 임플란트 주위 연조직에 관한 연구

이시철\*, 정근식, 임성빈, 정진형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

## 서론

수많은 연구에서 골유착성 임플란트에 대한 성공적인 결과를 보고하고 있으며 많은 임상가들은 임플란트의 성공이 titanium재료와 조직간의 유착에 의존한다고 믿고 있다.

Osseointegration된 임플란트에 의해 지지되는 보철물의 장기적인 성공은 여러 가지 biomechanical factor에 의해 영향을 받게된다. 이중 임플란트의 치조정 부위와 abutment주위 연조직의 상태는 치조골과 임플란트의 관계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미 발표된 periodontal parameter를 이용하여 하악 부분 무치악 환자에서 peri-implant mucosa를 관찰하며 각각의 각화치은 양, plaque 지수, gingival index 등을 조사하여 각화치은과의 연관 관계를 밝히고자 본 실험을 시행하였다.

## 본론

단국대학교 치과병원 치주과에서 하악 구치부의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후 보철이 기능중인 환자로 계속 관리중인 28명 80개 fixture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시술시 평균 나이는 46.8세 이었다.

환자의 평가는 보철물 제거 후 물을 이용한 가벼운 세척을 시행하고 측정하였다. 이때 색조나 투명도를 측정하였고 각각의 평가는 가장 trauma가 적게 가해지는 순서로 시행하였다. (Plaque Index-Keratinised Mucosa Index- Gingival Index- Probing depth) 모든 검사는 1명의 치주 전문의에 의하여 시행되었다. 본 논문의 통계처리에는 SPSS V7.0 for Win(SPSS Inc.,USA)을 사용하였다. 각화치은의 양을 0-3군으로 나누어 이를 각각 plaque index, gingival index, pocket depth를 비교하기 위해 Kruskal-Wallis test를 사용하였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인 plaque index와 pocket depth의 결과를 판독하기 위해 Mann-Whitney test를 사용하였다.

## 결론

하악 부분 무치악 환자에서 peri-implant mucosa를 관찰하며 각각의 각화치은 양, plaque 지수, gingival index 등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임플란트에서의 각화치은 지수의 분포는 47.7%로 지수 3이 가장 많았으며 3, 1, 2, 0 순으로 나타났다.
2. 임플란트에서의 치태지수는 0이 11.3%, 1이 61.7%, 2가 26.0%, 3이 1.1%로 지수 1이 가장 많았으며 각화 치은지수에 대해 치태 지수 0과 각 지수간의 유의성 있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 $p < 0.05$ ) 또한 각화치은 지수가 증가함에 따라 치태지수가 감소하는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3. 임플란트에서의 치주낭의 깊이의 분포가 가장 높은 것은 2mm로 48.9%였으며, 1mm가 23.5%, 2mm가 16.8%로 이 세군의 합이 89.2%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각화치은 지수에 대해 치주낭 깊이 2mm와 3mm에서 유의성 있는 결과가 나타났다( $p < 0.05$ ). 또한 각화치은 지수가 증가함에 따라 치주낭 깊이가 감소하는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4. 임플란트에서의 치은지수의 분포는 지수 0이 58.0%로 가장 많았으며 0, 1, 2, 3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으로 미루어 보아 하악 구치부 임플란트 주위의 각화치은의 양은 임플란트의 치태지수 그리고 치주낭의 깊이와 연관이 있으며 장기적 예후 측면에서 볼 때 임플란트 주위의 각화치은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된다.